

설맞이 커트 5000원 ‘행복 이발소’...“추억·웃음도 가득하죠”

설 연휴를 앞둔 지난 30일 오전 9시 광주 시 광산구 소촌동 ‘금성이용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린시절 아빠 손에 이끌려 찾았던 이발소에서 나던 먼도 크립함과 염색약 등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발소 한 가운데의 오래된 석유난로 위에선 세월의 때가 묻은 양은 주전자기 무심히 수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마치 1970년대로 시계를 되돌린 듯 이발소 내 풍경은 딱 그 시절 그 모습이었다.

“씩씩씩”. 58년 경력의 이발사 김영택(83)씨의 능숙한 손놀림에 10년 단골 김승규(58)씨의 머리카락이 흠뻑났다. 김씨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정성스런 빗질과 함께 가위질을 이어갔다.

설을 앞둔 터라 머리를 손질하려는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씨의 이발소는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6평(19.8㎡) 남짓한 공간에 놓인 3개의 낡은 이발용 의자, 20여 년이 넘는 낡은 가위, 옛날 세면대 등 이발방만한 ‘금성이용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70~80년대로 거슬러온 것 같았다.

김씨가 운영하는 금성이용원은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바버샵(Barbershop)의 원조격이다.

김씨는 여든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김씨는 대부분의 이·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이발

58년 경력 이발사 김영택씨의 설

해방 후 어깨너머 기술 배워

1970~1980년 이발소 전성기 하루 100명 찾을 정도로 북적

버스 타고 멀리서 오는 단골들

손님 한명에 1시간 정성 쏟아 건강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것

기계(미용 클리퍼)도 쓰지 않는다.

금성이용원은 요즘 손님의 발길이 과거에 비해 많이 뜸해졌지만, 아직도 삼도동 등 멀리서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 덕분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날로그적 감성만큼이나 손님 한 명을 이발하는데 들이는 시간도 1시간이 넘는다.

김씨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손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다”면서 “최대한 가위로 손질해 이발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세기 이상을 이발사로 살아온 김씨는 이발에 대한 열정과 가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김씨는 “과거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100명이 찾을 정도로 많았다”면서 “남자들

도 미용실을 찾다 보니 손님이 줄었다. 그래도 단골들이 하루 평균 10여 명씩은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이용원은 커트만 하면 5000원, 염색(커트포함)을 더해도 단돈 1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면도를 원하면 1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을 올릴 수 있지만 버스를 타고 멀리서 찾아주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올릴 수가 없어”

김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45년 나라가 광복됐지만,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5살 때 고창인 장성을 떠나 홀로 당시 번화가였던 송정리로 왔다고 한다.

송정리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서 계란 파는 일을 하던 김씨는 우연히 손을 씻기 위해 역 앞 이발소에 갔다가 운명처럼 이발사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엔 임금도 주지 않고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 아침·저녁 끼니는 챙겨주니 군소리 않고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지, 뭐”

김씨는 송정리 미군 부대 인근 이발소에서 처음 3년간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고, 물을 데우기 위해 조개탕을 가는 등 허드렛일만 했다.

그때까지 가위를 잡기는 커녕 선배들이 머리 손질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겨우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이발소를 차렸다. 그렇게 배운 기술로 1965년도에 이발사 면허도 땀다.

김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갑자기 이발사는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운영할 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서 ‘금성이용원’을 운영해온 이발사 김영택씨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있다고 해 첫 시험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며 “당시 단골 손님이던 광산군 보건소장이 힘을 써주겠다고 해 다시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수 있었다. 그 시절엔 모든 게 그랬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발소의 전성기는 1970~80년대였다.

김씨는 “그때는 이발소에 이발, 면도, 머리 감는 사람 등 3명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면서 “그때 손님이 지금도 단골이 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발사의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발소가 하나, 둘 폐업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김씨는 “아직도 가위를 잡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이발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이 허락한 데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운행 함평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징역 10개월·집유 2년으로 감형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운행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중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72)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직군수로 군정을 수행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군수는 2심에서 감형되긴 했지만,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공소사효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명함 배포 박우량 군수 불기소 부당” 주민 566명 재정신청

검찰이 6·13 지방선거 전 항구 대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우량 신안군수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주민 500여명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31일 광주고법과 광주고검 등에 따르면 신안군 주민 박준용(57)씨 등 566명은 박 군수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하지 않음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박씨 등은 박 군수가 지난해 설 연휴인 2

월 15일 송광항 대표소에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등과 명함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박 군수가 초범이고 CCTV 등으로 배포 행위가 확인된 명함이 35장에 불과한 점, 명함을 받은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에 처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29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손석희 폭행 주장 기자 “뉴스룸서 사과하면 용서”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설 연휴 이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1일 “손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확한 일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마포구 삼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대표는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석희 사장님.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술만 마시면 불 지르는 10대녀, 남친 이별 통보에 불 냈다 ‘철창행’



○...술만 마셨다하면 불을 지르는 술버릇이 있는 1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불을 냈다가 결국 철창행.

○...지난 3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5분께 만취한 A(19)양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B군

이 이별을 통보한 뒤 떠나자, 가스렌지 위에 플라스틱 반찬통을 놓고 가스불을 켜겠다는 것.

○...당시 원룸 입주인 20여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와 상습 방화 전력을 토대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대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